

# 강수경 경력

여, 1993 (30세)

이메일 tnrud193@naver.com | 휴대폰 010-4166-9356 | 전화번호 054-439-1710

주소 (02237) 서울 중랑구 면목로39길



📁 경력

(주) 코니아랩

총 4년 11개월

🎓 학력

계명대학교

대학교(4년) 졸업

💰 희망연봉

3,600~3,800만원

직전 연봉 : 3,850 만원

📁 포트폴리오

<https://sutrong7.github...>

## 나의 스킬

- HTML
- HTML5
- CSS3
- 퍼블리싱
- Git
- jQuery
- JavaScript
- Figma
- Adobe Photoshop

## 경력 총 4년 11개월

2022.03 ~ 2023.05

1년 3개월

✓ (주) 코니아랩

ICT 본부 · 주임 1년차 · 퍼블리셔

깃을 통한 프로젝트 참여

피그마, xd 시안 퍼블리싱

자사 신규 사이트 퍼블리싱

자사 쇼핑몰 유지보수

연봉 3,850만원

근무지역 서울

퇴사사유 근무조건

2017.11 ~ 2021.06

3년 8개월

✓ (주)커머스웨어

UIUX 팀 · 대리 · 퍼블리셔

웹디자인, 배너 디자인, 웹 퍼블리싱

연봉 2,700만원

퇴사사유 업직종 전환

## 학력 대학교(4년) 졸업

2012.02 ~ 2016.02

졸업

계명대학교(4년제)

광고홍보학과

지역 대구

학점 3.46/4.5

주/야간 주간

2009.03 ~ 2012.02  
졸업

성여자고등학교

문과계열

## 경험/활동/교육

2021.12 ~ 2022.01

팀스파르타주식회사

교육이수내역

[왕초보] 비개발자를 위한, 웹개발 종합반 (프로그래밍 실무, 풀스택) 과정 수료  
html,css,javascript,ajax,웹스크래핑,파이썬,Flask 풀스택 개념 이해

2021.12 ~ 2022.01

tis정보기술교육센터

교육이수내역

자바스크립트와 제이쿼리를 활용한 프론트엔드 웹개발 과정

2019.03 ~ 2019.04

더조은컴퓨터아카데미

교육이수내역

웹퍼블리셔(중급)  
HTML/CSS/JavaScript/JQuery

2018.12 ~ 2019.01

그린컴퓨터아카데미

교육이수내역

HTML5+CSS3 - 디지털디자인

2018.07 ~ 2018.08

그린컴퓨터아카데미

교육이수내역

Javascript- jQuery - 응용SW 엔지니어링

2017.03 ~ 2017.10

ICT폴리텍대학교

교육이수내역

NCS기반 스마트융합애플리케이션 개발자 과정(10개월 과정 국비지원훈련) 현재 수강중  
포토샵, 일러스트레이터, 드림위버, 웹표준 코딩(html,css,javascript 등)

## 자격/어학/수상

2017.07

2017 안전 디자인 공모전 입선

창의인성교육문화협회

2016.12

컴퓨터활용능력(CAA)2급

최종합격 | 한국정보관리협회

2017.07

GTQ포토샵1급

최종합격 | 한국생산성본부(KPC)

2017.09	<b>웹디자인기능사</b>	최종합격		한국산업인력공단
2016.05	<b>유통관리사2급</b>	최종합격		대한상공회의소
2016.11	<b>정보처리기능사</b>	필기합격		한국산업인력공단
2016.03	<b>사회복지사2급</b>	최종합격		한국사회복지사협회

## 포트폴리오 및 기타문서

**포트폴리오**
[↗ https://sutrongZ.github.io/sutory/index.html](https://sutrongZ.github.io/sutory/index.html)

**경력기술서**
[↗ 강수경\\_경력기술서.docx](#)

**증명서**
[↗ 사회적 기업 씨포터즈 상장.png](#)

**증명서**
[↗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교육과정 수료증\(엑셀,정보처리기능사\).png](#)

**증명서**
[↗ 대학교 성적우수 상장\(2013\).png](#)

**증명서**
[↗ 대학교 성적우수 상장\(2012\).png](#)

**증명서**
[↗ 대학 학위증.png](#)

**기타**
[↗ 고등학교 졸업 표창장.png](#)

## 자기소개서

### 성장과정

'배를 갈라 얻은 새로운 삶을 아꼈 것'

저는 4녀 중 셋째로, 건강한 다른 자매들과는 달리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. 당시 집안 사정이 넉넉지 못해 지역 택시 회사의 '심장병 어린이 돕기 모금'행사를 통해 수술을 받아, 5살이 되었을 때, 병을 완치할 수 있었습니다. 자아 형성이 시작되는 유년기에 몸 정중앙에 새겨진 긴 흉터에 정신적 난향을 겪을

때,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, 많은 사람의 도움들이 모여서 지금의 네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이며, 새로이 얻은 삶의 가치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. 덕분에 저는 병력을 의식하여 위축되지 않고, 무던한 노력을 통해 삶의 성공 경험을 쌓아나가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

---

## 대인관계 능력

'노력을 통해 신뢰를 얻는 사람일 것'

저는 등을 돌리지 않는 곰 같은 사람입니다. 저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낮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할 자신이 있습니다. 저는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상담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동행하는 멘토링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. 당시 제가 만났던 아동은 어른에 대한 불신감이 컸기 때문에, 치료를 위해 센터를 다니는 다른 아동들 보다 예측불허의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켰습니다. 활동 초기, 센터에서도 저에게 이 아동을 매칭할 때 아이가 변화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, 아동조차도 자신의 행동에 지쳐 활동을 곧 포기할 멘토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. 저는 만남을 거듭하면서 아동이 지키기 쉬운 사소한 약속들을 하였고, 아동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저에게서 멀어지려 할 때 마다, '오늘 수고했어. 다음 주에 봐'라며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종종 현명한 대처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상담 담당자 선생님에게 자문하기도 하였습니다. 그 결과로 활동 종결이 가까워져 올 때, 아동은 저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고, 동네의 친구들을 마주칠 때 마다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하여 주었습니다. 센터와 학교 복지사 선생님께서도 아동의 변화에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.

---

## 나의 장점

'질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상황을 개선할 것'

저의 장점은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. 이는 사회복지 실습을 할 때 주춧돌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. 저는 실습에서 기관이 속한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2주간 진행되는 방학 교실의 담임선생님을 맡았습니다. 기본프로그램의 진행과 5회기 분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야 했으며, 그에 따라 하루에 써야 하는 일지의 양이 상당하였습니다. 업무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을 수 없어 처음에는 하루 업무를 마무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습니다. 그래서 기관직원들과 학교복지사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고 이해한 것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. 그들은 더 많이 알려 주려 하였고, 항상 좋은 답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. 이러한 양질의 피드백은 침착하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몇 번의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를 엑셀로 자료화하여 가공할 때, 수식을 적용한 엑셀 파일을 다른 실습생들과 공유하여 처리속도를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. 그 결과로 저는 기관 직원들에게 적극적이고 꼼꼼한 실습생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---

## 나의 단점

'지나친 자기 검열을 지양하고, 신속한 판단을 내려 실행 할 것'

저의 단점은 여러 상황이 겹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저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. '어떻게든 잘 해결 될 거야'라는 낙관적인 성격이 아니므로,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 된 걸까,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등 많은 생각을 합니다. 이러한 지나친 검열은 신중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여야 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, 정확하고 신속한 상황 해결이 필요 될 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. 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는 매장 서비스직 아르바이트와 각종 조사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습니다. 이 경험들은 예상치 못한 자타의 실수가 발생하였을 때 상황을 담당자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신속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. 그 결과로 당시 매장 사장님에게서 '수경 씨는 내가 화를 내려고 하면 이미 문제를 다 해결해서 화를 낼 수가 없어'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.